

# “일회용기 사양”...순천시 ‘용기 내 챌린지’ 눈길



순천대 대학로 상인들은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 내 챌린지’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용기 내 대학로’ 사업

상인들 다회용기 사용 실천

친환경 생활양식 전환 운동

상인들이 직접 기획 각종 혜택

순천시가 음식 포장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용기 내 챌린지’가 주목 받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8월부터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용기 내는 상점, 용기 주는 시민, 용기 더하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용기 내 대학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기 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자는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운동’이다.

다. 최근 류준열, 브레이브걸스 등 많은 유명인들의 선행과 홍보에 힘입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용기 내 챌린지는 점주의 생태 감수성이나 지자체의 전략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순천 대학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용기 내는 대학로 사업은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순천시가 지난 6월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순천시민 아고라 포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인용기 사용 시 혜택을 제공하자’는 시민 아이디어가 1위로 선정됐다.

순천문화도시센터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지역 전문가, 청년, 문화예술 종사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일상 속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센터는 대학로 상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용기 내 챌린지를 직접 기획하도록

제안했다. 대학로 상인들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각 점포 별 특성에 맞는 혜택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안 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대학로 상인들은 요즘 할인, 쿠폰 지급, 용량 추가 등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용기 내는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로를 넘어 순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순천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순천은 ‘사람과 거버넌스’를 남기는 문화도시로 확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함께 하는 순천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문화도시사업을 수행하는 순천문화도시센터는 텀블러 세척소와 순천형 플라스틱 방앗간, 오늘도 ‘수’ 거하세요 등 일상에서 생태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고흥군, 교통안전공단 등 협업 50개 마을 교통안전 지원사업

고흥군이 농촌마을 교통사고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9일까지 20여일간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지역 5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교통안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과 농작업자의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업기계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안전반사판 부착,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야간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안전교육은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고 예방대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요령과 건전한 음주 습관의 중요성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지역의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의식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여수시,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7곳 첨단화

국토부 공모사업, 전남 유일 선정 내년까지 국비 등 18억여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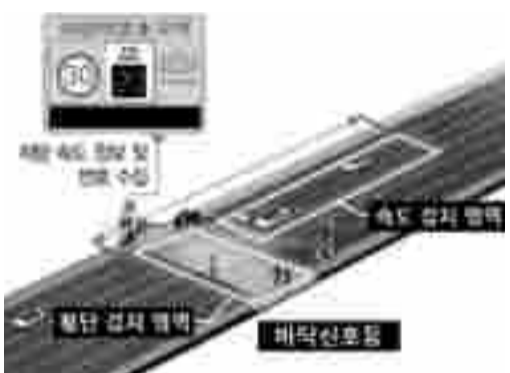
여수시가 내년까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첨단화사업에 착수한다.

여수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9억 원, 도비 2억여원을 포함한 총 18억 원을 들여 내년 초까지 횡단보도 13곳과 버스정류장 4곳 등 17곳을 첨단화한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자 사고다발 지역 13곳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LED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고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며 보행자를 인식하고 차량경고 LED 전광판도 설치된다.

또 시내버스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4곳의 버스정류장에 냉난방설비·공기청정기·Wi-Fi·정보안내 단말기 등 편의시설은 물론 CCTV·비상벨 등이 구비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여부를 인지해 차량 운전



스마트 횡단보도 조감도.

자와 보행자에게 시정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폭염, 한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될 전망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IoT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며 “시민이 편리함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여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구례군, 나주 국제농업박람회서 특산물 홍보

구례군이 나주에서 열리는 2021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특산물 알리기에 나섰다.

구례군은 홍보관을 설치해 산수유, 단감, 표고버섯, 우리 밀, 수제 김부각, 비빔밥 나물 세트, 고로쇠 장류 등 30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정해 선보이고 있다.

특산물과 함께 조리산에서 볼 수 있는 희귀 식물을 표본으로 만날 수 있으며 제1회 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과 제20회 대한민국 압화 대전 국내·

외 수상작도 함께 전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구례군 방문의 날 행사에서는 농·특산물 및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썬부쟁이 쿠키·머핀 나누기, 노고단 야생화 원주리 알아보기, 압화 곱받침 만들기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구례군은 워드 코로나 전환에 발맞춰 유통홍보 채널을 다각화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보성군 농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 에버랜드 캐릭터 축제서 동심 저격

녹차몬·꼬막몬·키위몬

내년 보성세계차엑스포 홍보

보성군 농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가 지난 24일 에버랜드에서 열린 ‘2021년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에 참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지역 알리기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는 역대 우리동네 캐릭터 수상작들이 참여하여 열리는 지역·공공 캐릭터 축제로 보성군은 2020년 캐릭터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보성군 농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녹차몬, 꼬막몬, 키위몬)는 에버랜드를 찾은 아이들과 소통하며 동심을 저격했다.

보성군은 현장에서 BS삼총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 캐릭터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내년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국제행사 규모로 열리는 보성세계차엑스포 홍보도 병행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농가와 상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BS삼총사 캐릭터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캐릭터와 지역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BS삼총사는 다음달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열리는 ‘넥스트콘텐츠페어’에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역대 수상작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광양시 내달 5일까지

민·관합동 불법광고물 정비

광양시가 11월 5일까지 옥외광고협회 회원사와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곳곳에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이나 학교·아파트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및 일반사업 현수막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음원상 전단, 대출·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지다.

일제정비 기간 현수막과 벽보는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고, 입간판은 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정비와 사전제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정계시대를 이용해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역 소상공인과 광고업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광양시는 정책과 시민의 다양한 홍보활동 유도를 위해 현수막 지정계시대 102개(행정용 16, 상업용 73, 저단·단일 행정용 13)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청서를 작성해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에 제출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권희상 광양시 도시재생과장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 만큼 대대적인 정비로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 판매가격  | 무상보조금 | 도내생산보조금 | 본인부담금 |
|-------|-------|---------|-------|
| 833만원 | 303만원 | 48만원    | 482만원 |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 판매가격  | 무상보조금 | 도내생산보조금 | 본인부담금 |
|-------|-------|---------|-------|
| 650만원 | 330만원 | 48만원    | 272만원 |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 판매가격  | 무상보조금 | 본인부담금 |
|-------|-------|-------|
| 462만원 | 330만원 | 132만원 |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R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